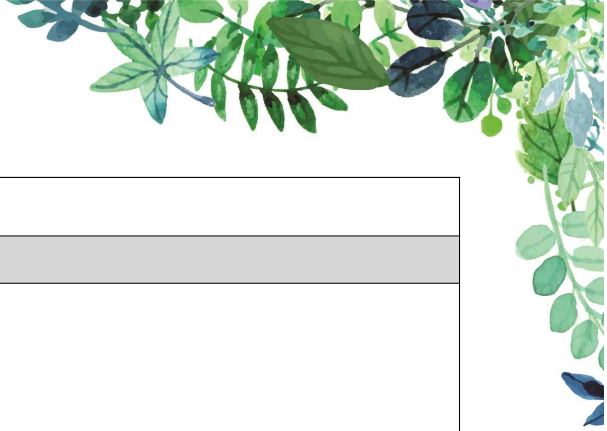


ABS BRIEF

나고야의정서 국내외 동향





기 간	2017년 10월 1일 ~ 31일
-----	--------------------

요 약

● **국내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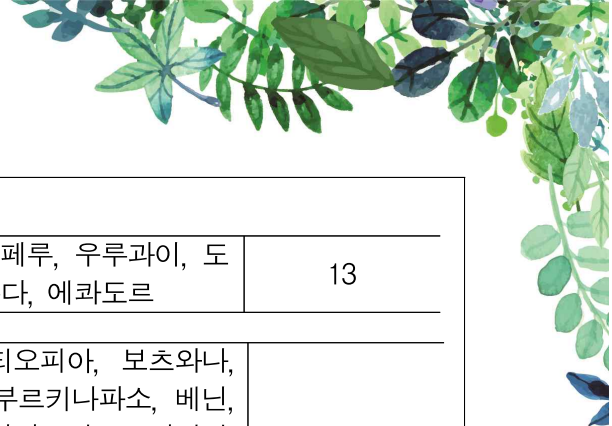
【신문기사 및 기타】

- 과학·기술집약적 산업 ‘바이오’ 국가 차원 전략 육성 (‘17.10.5)
- 전남산림자원연구소, 곡성에 털조장나무 최대 군락” (‘17.10.6)
- [앵커&리포트] 나고야 의정서 발효...생물자원 주권 시급 (‘17.10.7)
- 국명 없는 곤충, 한글날 맞아 우리말 이름 얻는다 (‘17.10.9)
- [기자의 눈] 제약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불감증 원인 (‘17.10.10)
- 건식협회,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 참가 접수 (‘17.10.10)
- 식물식품종보호제도 20주년 국제심포지엄 개최 (‘17.10.13)
- 생물자원 부국 7개국 공무원 초청 생물다양성 교육 (‘17.10.16)
- 생약 수입가 폭등...우황청심원 가격인상 불가피? ” (‘17.10.16)
- [차 한잔 나누며] “생물주권 인정, 환경 살리고 기업에도 이득” (‘17.10.16)
- [전문가의 눈]포도, 신 품종 육성·수출 확대에 주력해야 (‘17.10.20)
- 환경부, 내일부터 나고야의정서 전국 순회 설명회 (‘17.10.25)
- 전남 신안 비금·도초에 토종 약용식물 집단 자생 확인 (‘17.10.26)

● **국외동향**

- 현재까지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04개국(103개국+EU)**

지역	비준 국가	합계
아시아	요르단, 인도, 라오스, 시리아, 몽골, 타지키스탄, 인도네시아, 부탄, 미얀마,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파키스탄, 중국, 카타르, 한국, 일본, 쿠웨이트, 레바논	22
오세아니아	피지,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바누아투, 마셜제도	5
유럽	서부	12
	기타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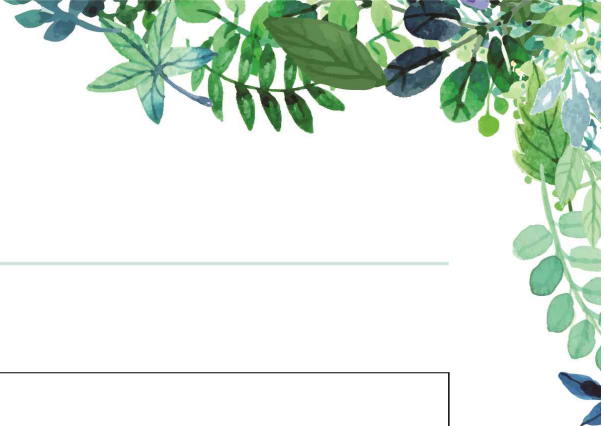


중남미	파나마, 멕시코, 온두라스, 가이아나, 과테말라, 페루, 우루과이, 도미니카, 쿠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13
아프리카	가봉, 르완다, 세이셸, 모리셔스, 남아공, 에티오피아, 보츠와나, 코모로스, 기니비사우,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부르키나파소, 베닌, 케냐, 나미비아, 우간다, 니제르, 부룬디, 마다가스카르, 감비아, 모잠비크, 수단, 말라위, 기니, 레소토,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지부티, 토고, 세네갈, 잠비아, 말리, 스위질란드, 시에라리온, 카메룬, 상투메프린시페, 앙골라, 짐바브웨, 차드	41

- 짐바브웨('17.11.30), 에콰도르('17.12.19), 차드('18.1.9), 레바논('18.1.11)은 당사국(Parties, 현재 100개) 예정

【 신문기사 및 기타 】

- 차드, 나고야의정서 103번째 비준 ('17.10.11)
- 레바논, 나고야의정서 104번째 비준 ('17.10.13)
- 인도, 마을 자치 기구에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BMC) 설치 ('17.10.14)
-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세계 식량의 날' 기념 ('17.10.16)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ABS 관련 물질이전계약서(MTA) DB 구축 중 ('17.10.21)
- 프랑스, 파리 자연사박물관에서 제7차 글로벌 파트너십 회의 개최 ('17.10.30)
- 한국, 우간다, 벨라루스, 대륙별 지역 BBI 이니셔티브 라운드테이블 개최 ('17.10.31)



국내 동향

주요 동향 정보

【신문기사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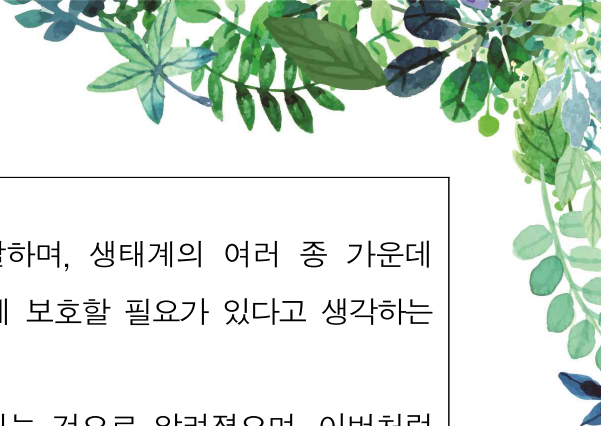
□ 과학·기술집약적 산업 ‘바이오’ 국가 차원 전략 육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7일 제2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를 심의 및 의결.
 - 이번 계획은 고령화, 감염병, 안전한 먹거리, 기후변화 대응 등 바이오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이오경제 시대의 도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 승자가 시장을 독식하는 과학·기술집약적 산업인 바이오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 바이오경제 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립됨.
 - 글로벌 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바이오시장 점유율을 현재 1.7%(생산 기준 27조원) 수준에서 2025년 5%(생산 기준 152조원)까지 달성하겠다는 도전적 목표를 수립하고, (1) 국산 신약 개발, (2) 일자리 창출, (3) 글로벌 기술이전성과 제고, (4) 사회문제 해결 기여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4대 세부 목표를 제시.
 - 합성생물학, 유전자교정 등 범용 혁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해 해외 자원의존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전략자원도 확보하고, 바이오 정보 통합서비스를 올해부터 구축해 연구지원 정보, R&D 성과, 통계 등을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기업 수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
-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혁신성장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미래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확대가 유망한 바이오는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바이오가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과 연계를 통해 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과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

※ 산업일보 (‘17.10.5)

□ 전남산림자원연구소, 곡성에 털조장나무 최대 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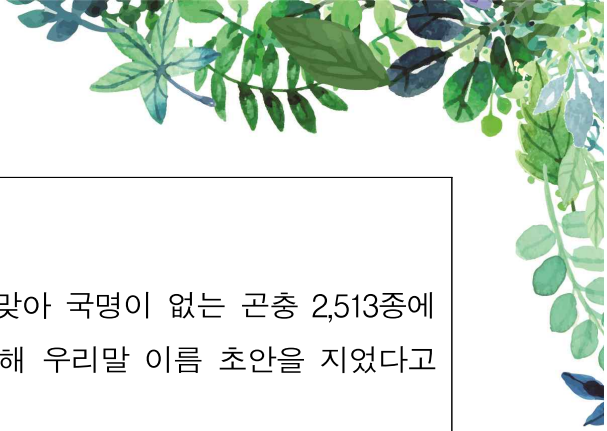
- 6일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소장 오송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까지 3일간 곡성 일대의 산림자원조사를 실시한 결과 ‘털조장나무’ 등 희귀·특산식물 및 약용식물 등을 다수 확인함.



- 깃대종이란 한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종을 말하며, 생태계의 여러 종 가운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또 그 중요성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생물종임.
- 지금까지는 무등산과 조계산 지역에만 부분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처럼 대규모 집단 자생지를 발견한 것은 매우 이례적임.
-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그동안 전남지역 산야와 섬지역 산림자원 연구를 위해 2013년부터 산림자원조사단을 운영, 광릉요광꽃, 나도승마, 콩짜개란 등 환경부 법정 보호종의 도내 서식을 확인하고, 유용자원을 확보해 '산림자원 추출물은행'을 운영해 왔음.
- 오송귀 소장은 "나고야의정서 채택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생물자원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세계 각국이 생물자원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세계정세에 발맞춰 토종 산림자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유종 중심으로 조사·수집을 확대하고, 기능성 물질 추출을 통해 산림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힘.
- ※ 국제뉴스 ('17.10.6)

□ [앵커&리포트] 나고야 의정서 발효...생물자원 주권 시급

- 감초와 녹용 같은 한약재의 30%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들어오는 우리나라가 지난 8월 17일부터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이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순수 재료값만 주고 사오면 됐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도 있음.
- 중국은 여기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생물자원을 이용하면 이익을 공유하되, 이와 별개로 연간 이익금의 최대 10%를 추가로 납부하는 조례를 예고.
- 의약 화장품 업체의 40%는 해외 생물자원을 수입하면서도 단 8%만 나고야 의정서 대책을 마련 중 인 실정.
- 식품의 해외 의존도도 커 딸기의 90% 양파의 80% 김 미역의 20%가 일본 등지에서 넘어온 품종이며, 쌀도 90% 이상이 외국 품종과의 개량종임.
-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바이오 산업계는 연간 5천억 원, 특용 화훼작물은 최대 2천억 원 정도를 이익공유 차원에서 돌려주게 될 거란 분석이 나옴. 생물자원, 그 자체의 가치가 중요해진만큼 우리 고유 자원을 지키는 게 시급한 과제임.
- 한반도의 자생생물 10만 여종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발굴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함.
- ※ KBS 뉴스 ('17.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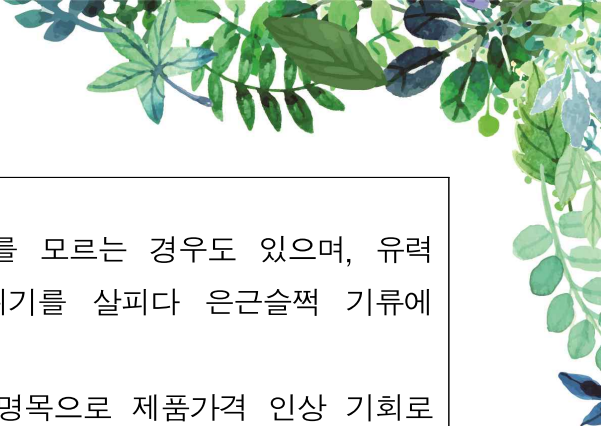
□ **국명 없는 곤충, 한글날 맞아 우리말 이름 얻는다**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백운석)은 한글날을 맞아 국명이 없는 곤충 2,513종에 우리말 이름을 부여할 예정이며, 우선 곤충 50종에 대해 우리말 이름 초안을 지었다고 밝힘.
- 2016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곤충은 1만 6,993종으로, 이 중 약 15%인 2,513종이 국명이 없는 상태임.
- 새로 우리말 이름을 얻은 곤충 50종은 다정큼나무이, 두눈긴가슴하늘소, 한국왕딱부리반날개, 우리거미파리 등으로 노린재목 10종, 딱정벌레목 24종, 바퀴목 1종, 벌목 8종, 부채벌레목 1종, 파리목 6종임.
- 국립생물자원관은 곤충의 생태적 습성, 겉모습, 우리나라 고유종 등의 정보를 토대로 곤충의 우리말 이름 초안을 제작.
- 최근 새로운 우리나라의 곤충이 속속 발견되고 있지만, 해외 학술지에 발표할 경우, 국명이 따로 없어 학명(라틴어)을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해외에서 먼저 알려진 종의 경우 영명을 직역하여 사용해 불편함과 혼동이 있었음.
- 곤충의 세계 표준 명칭인 '학명(scientific name)'은 '국제동물명명규약(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에 따라 라틴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공자가 아니라면 뜻을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읽기도 어려움.
- 전국의 대학과 연구소의 곤충 전문가들과 함께 색, 형태, 생태 등 곤충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곤충의 국명 초안을 잡을 계획이며 국문학자, 생물학자의 교차 검수를 통해 국명을 확정할 계획임.
- 곤충뿐만 아니라 무척추동물·미생물 분야로 국명을 짓는 사업을 확대하고, 비속어나 외국어에서 유래한 국명에 대해 논의하는 '국가생물종 국명·영명 부여 사업의 추진상황 및 발전방향 보고회'를 인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 내에서 10월 20일 개최.
-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나고야의정서 시대에 우리 생물자원의 이름을 누구나 쉽고 바르게 부를 수 있게 다듬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국민 다수의 의견 수렴과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한 종의 이름이 여러 개이거나 잘못 유래된 생물 이름이 붙은 경우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힘.

※ 헤럴드경제 (‘17.10.9)

□ **[기자의 눈] 제약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불감증 원인**

-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지 2달여가 지났지만 상당수의 국내 제약기업들은 아직도 이에 대한 구체적 관리방안과 대안모색에 적극성을 띠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다양함.



- 몇몇 소규모 업체는 지금까지도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유력 제약사들도 정부와 비준국 그리고 경쟁업체의 분위기를 살피다 은근슬쩍 기류에 편승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됨.
- 극히 일부지만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로열티 지급을 명목으로 제품가격 인상 기회로 삼겠다는 곳도 있음.
- 나고야의정서는 자원 이용국(선진국)과 제공국(개도국)간의 참여한 논의 끝에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음.
- 7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컨트롤타워인 환경부와 당사자격인 제약바이오 협회와 제약기업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음.

※ 데일리팜 ('17.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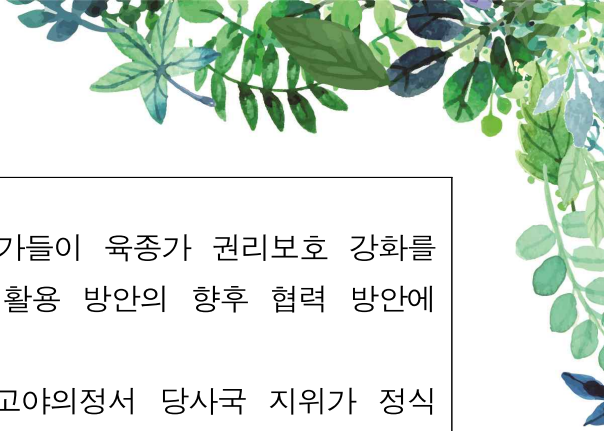
□ 건식협회,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 참가 접수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건식협회)는 오는 10월 17일 판교에 위치한 협회 사옥에서 건강기능식품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오는 13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힘.
-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따른 정책 및 업계 동향과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들로 구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특허청 등 정부기관과 산업 및 학계를 대표하는 연사들이 참여해, 긴밀히 소통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
- 건식협회 김수창 전무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서 법률 이행에 필요한 정보 공유와 대응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협회는 앞으로 국내 자원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해외 자원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함.

※ 의학신문 ('17.10.10)

□ 식물식품종보호제도 20주년 국제심포지엄 개최

- 국립종자원은 12~13일 양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식물 신종보호제도 20년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동 제도 운영의 미래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품종보호 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
- '대한민국 품종보호 20년 역사와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립종자원과 (사)한국원예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학계와 종자관련 업체·협회에서 약 800명이 참석.
- 12일에는 UPOV 사무차장 Dr. 피터 버튼이 품종보호제도 국제 협약 및 품종보호 국제동향을, 국립종자원 조일호 품종보호과장이 우리나라의 품종보호 20년의 운영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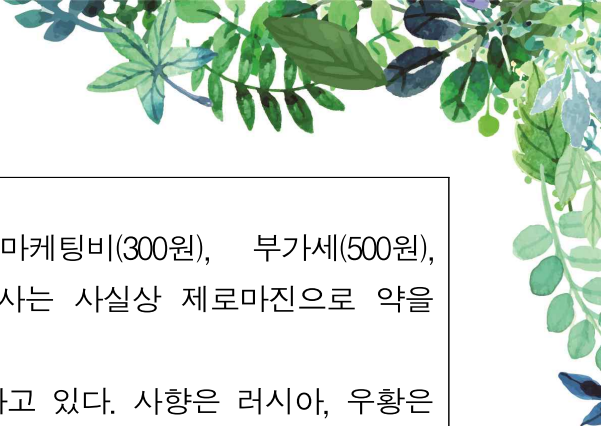
- 13일에는 식물분야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육종가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침해 해결 문제, 품종보호와 식물특허의 비교·활용 방안의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주제를 발표.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지위가 정식 발효(2017.8.17)됨에 따라 우리나라 종자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음.
- ※ 농촌여성신문 ('17.10.13)

□ 생물자원 부국 7개국 공무원 초청 생물다양성 교육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백운석)은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지구 생물다양성 보전 국제 공동연구 협력 7개국 공무원을 초청해 제8회 '생물자원 관리 인력양성 교육'을 실시.
- 지난 2007년부터 국립생물자원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라오스, 몽골, 미얀마, 마이크로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탄자니아 등 7개국 소속 공무원 14명이 참여.
- 교육 프로그램에는 식물, 곤충, 어류, 균류 등 생물상 조사와 박제 및 표본제작 등 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실습이 있으며, 유용생물소재 연구를 위한 천연물 추출, 효능 분석, 세포독성실험 등 생물자원 활용 연구 실습도 포함됨.
-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생물다양성 국제협력사업의 원동력은 국가 간 인적 네트워크와 협력국 공무원의 역량”이라며, “나고야의정서 이후 어려워진 해외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경로를 인적·기술적 교류의 폭을 넓히는 인력양성 교육으로 뚫어내길 기대한다.”고 밝힘.
- ※ 정책브리핑 ('17.10.16)

□ 생약 수입가 폭등...우황청심원 가격인상 불가피?

- 주원료인 우황과 사향, 영모향, 식용금박 등의 공급가가 최근 7년 새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우황청심원 생약단가 폭등에 따른 제조업체들의 약국 도소매 공급가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됨.
- 1996년 제정된 야생희귀동물보호규약(CITES)으로 사향과 우황 공급량이 크게 감소한 것도 부가적 원인으로 지목되며, 여기에 더해 지난 8월 인준된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즉 원료 공급국가에 대한 로열티 지급도 잠재적 가격인상으로 작용.
- 2010년 당시 우황·사향의 1kg당 거래가는 각각 1800만원·1억 2000만원 정도였지만 현재 우황은 2배 가까이 오른 3200만원에 사향은 1억 5000~2억원까지 오른 상황이며, 현재 우황청심원을 싸는 식용금박의 장당 단가도 7년 전 420원보다 19% 오른 500원에 거래되고 있음.



- 여기에 포장비(200원), 물류·유통비(300원), 홍보·마케팅비(300원), 부가세(500원), 설비투자비, 유지관리비, 부가원료 등을 합하면 제약사는 사실상 제로마진으로 약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삼성제약 관계자는 “우황과 사향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사향은 러시아, 우황은 남미, 카자흐스탄, 아프리카 등지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물량이 제한적이다. 시장가는 형성돼 있지만 현재로서는 부르는 게 값이다”고 토로.
- 현재 광동제약의 제품인 환제 우황청심원 약국판매가는 5000원, 현탁액 원·변방은 5~6000원·2~3000원 정도로 형성돼 있다. 원가상승율과 최소 마진율을 적용했을 때, 30~50%의 가격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

※ 데일리팜 (‘17.1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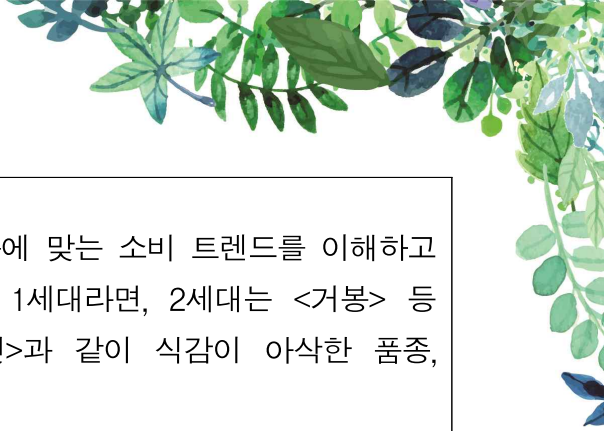
□ [차 한잔 나누며] “생물주권 인정, 환경 살리고 기업에도 이득”

- 16일 국립생물자원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인천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크리스티아나 파스카 팔머 CBD 사무총장은 이날 나고야의정서가 생물 주권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
- 생물자원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과정은 모두 투명하고 문서화된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각 나라가 제공하는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모두에게 공개가 되므로, 결국 기업 활동에도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앞으로 해외 자원을 쓸 때 전에 내지 않던 로열티를 내야 하는 산업계에서는 걱정이 앞서는 분위기이며, 특히 생물자원 부국인 중국이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들고 나오면서 업계는 더 긴장하고 있음.
- 이에 대해 팔머 사무총장은 “나고야의정서는 각국의 유전(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인정한다”며 “중국은 자국의 우선순위와 이익에 따라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는 절차를 밟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함. 이어 그는 “나고야의정서는 각국의 특수한 요구에 맞춰 조정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가진 만큼 한·중 양국이 함께 의정서를 구현하고 경험을 쌓아 다른 나라에도 이를 공유해주기 바란다”고 전함.
- 환경운동가였던 팔머 사무총장은 모국인 루마니아에서 환경·물·산림부장관을 역임했고, 그에 앞서 유럽 기후변화총국, 유럽 국제협력개발총국 등을 거쳤음.

※ 세계일보 (‘17.10.16)

□ [전문가의 눈]포도, 신품종 육성·수출 확대에 주력해야

-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협약인 나고야의정서가 2014년 발효됨에 따라 <샤인머스켓> 등 수입 품종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포도 유전자원을 활용한 신품종 육성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이석호 충북도 농업 기술원 포도연구소 육종재배팀장은 주장.



- 포도 육종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기호와 시대 흐름에 맞는 소비 트렌드를 이해하고 육종에 적용하는 것이며, <캠벨얼리> 중심의 포도가 1세대라면, 2세대는 <거봉> 등 4배체 대립계 품종이었고, 지금 3세대는 <샤인머스캣>과 같이 식감이 아삭한 품종,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품종 등 다양성이 선호되고 있음.
- 포도연구소는 기존 톱·낫·접도 등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60% 정도 노동력 절감효과가 있는 포도 박피기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며, 알숙기 작업용 ‘팔 보조기구’도 특허출원 후 농가에 보급할 예정임.
- ※ 농민신문 (‘17.10.20)

□ 환경부, 내일부터 나고야의정서 전국 순회 설명회

-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 한국바이오협회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전국을 돌며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법 설명회’를 개최.
- 설명회는 26일 부산에서 시작하며 대구(27일), 전남(11월 16일), 대전(11월 17일), 강원(12월 14일), 경기(12월 15일) 등 순으로 열리며, 본 설명회에서는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법에 따른 생물 유전자원 이용절차, 기업들의 이행방법, 주의사항, 중국 등 주요 당사국의 최신 입법동향 등을 익힐 수 있음.
- ※ 연합뉴스 (‘17.10.25)

□ 전남 신안 비금·도초에 토종 약용식물 집단 자생 확인

-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신안 비금·도초도 일대에서 산림자원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위손과 잔대 등 유용 약용식물 50여종이 집단으로 자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26일 발표.
- 비금도 선왕산(255m)과 도초도 큰산(265m) 일대 등산로 주변 식생 조사를 한 결과 향암·향염효과가 탁월한 바위손, 바위솔(와송), 일엽초, 세뿔석위 등이 자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
- 전남지역 산야와 섬지역의 산림자원 연구를 위해 2013년부터 산림자원조사단을 운영, 광릉요광꽃, 한란, 나도승마, 콩짜개란, 석곡 등 환경부 법정 보호종(Ⅰ,Ⅱ급)의 서식을 확인하고, 유용자원 800여종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300여 종에 대해 ‘산림자원 추출물은행’을 구축.
- 오송귀 소장은 “전남 섬지역은 다양한 난대수종 및 약용식물 등이 서식하는 토종 산림자원의 보고”라며 “앞으로도 나고야의정서 발효 등 국제 정세에 발맞춰 토종 산림자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토종자원 조사·수집을 확대하고, 기능성 물질의 추출·이용을 통해 산림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힘.
- ※ 아시아투데이 (‘17.10.26)



국외 동향

주요 동향 정보

【 신문기사 및 기타 】

□ 차드, 나고야의정서 103번째 비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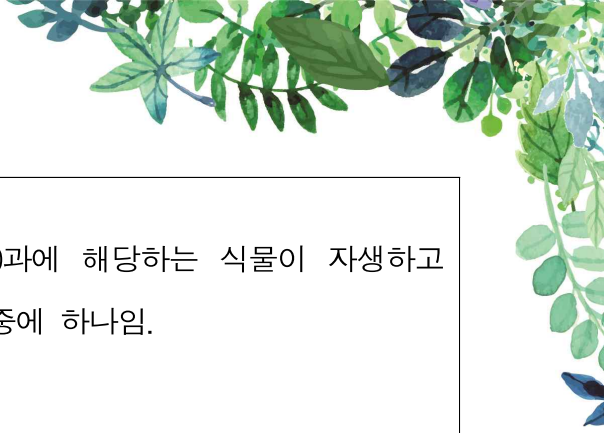
- 10월 11일(수)에 아프리카 대륙 중앙의 북쪽에 위치한 차드가 세계적으로는 103번째,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는 41번째로 나고야의정서의 비준국이 되었음.
- 차드는 이번 비준 후 90일 뒤인 2018년 1월 9일부터 정식으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됨.
- 이에 대한 CBD 사무국의 공식적인 보도자료는 아직 없으나, ABSCH에는 연락기관 1개만이 등록되어 있음.
- ※ CBD 사무국 홈페이지 국가 프로필 (‘17.10.11)

□ 레바논, 나고야의정서 104번째 비준

- 10월 13일(금)에 중동(서아시아)의 지중해 동쪽 해안에 위치한 레바논이 세계적으로는 104번째, 아시아 대륙 내에서는 22번째로 나고야의정서의 비준국이 되었음.
- 레바논은 이번 비준 후 90일 뒤인 2018년 1월 11일부터 정식으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됨.
- 이에 대한 CBD 사무국의 공식적인 보도자료는 아직 없으나, ABSCH에는 연락기관 1개만이 등록되어 있음.
- ※ CBD 사무국 홈페이지 국가 프로필 (‘17.10.13)

□ 인도, 마을 자치기구에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BMC) 설치

- 인도의 히마찰 프라데쉬(Himachal Pradesh) 주의 생물다양성이사회(State Biodiversity Board)는 UN 프로젝트의 도움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참바, 쿨루, 심라, 시르마우르, 킨나우르, 라홀-스피티 지역(Chamba, Kullu, Shimla, Sirmaur, Kinnaur and Lahaul-Spiti districts) 내 366개 마을 자치기구에 생물다양성 관리위원회(BMC)를 설치.
- 생물다양성 이사회(State Biodiversity Board)는 주 정부 단위의 협의체이며, 생물다양성 관리 위원회(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s)는 지역 단위의 협의체임.
- 생물다양성 이사회는 생물다양성법률(‘02년, Biodiversity Diversity Act) 이행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생물다양성 관리 위원회는 생물다양성규칙(‘04년) 제22조에 따라 지역 내 서식하는 모든 생물다양성 및 관련 전통지식을 문서화할 예정임.



- 히마찰 프라데쉬 주는 현재 약 3400종, 1038속, 180과에 해당하는 식물이 자생하고 있는 인도 내에서도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지역 중에 하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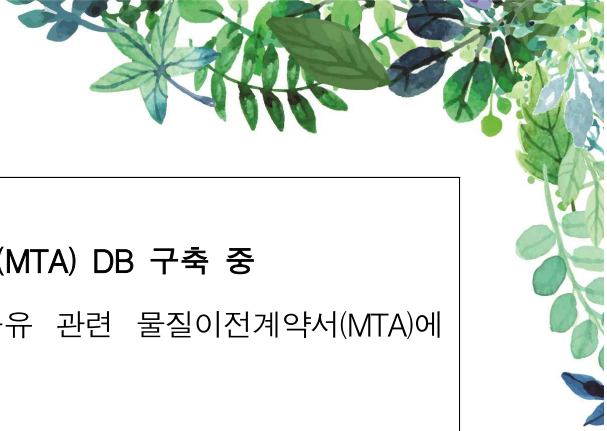
※ The Pioneer ('17.10.14)

□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세계 식량의 날' 기념

- 10월 16일(월), "세계 식량의 날(WORLD FOOD DAY)"을 기념하여 크리스티나 파머(DR. CRISTIANA PAȘCA PALMER) SCBD 사무총장이 전 세계에 기념사 발송.
 - 본 기념일은 1945년 같은 날에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UN-FAO)가 창설된 것을 기념하여, 식량안보에 관한 대중인식 제고,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농업 개발협력 노력 촉진 등을 위해 FAO 20차 총회에서 지정.
 - 올해 주제를 "이주의 미래를 변화시키자. 식량안보와 빈곤지역 개발에 투자하자. (Change the future of migration. Invest in food security and rural development.)"로 정함.
- 전 세계적으로 분쟁과 정치 불안이 심화되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보다도 많은 인구가 강제로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기아와 빈곤, 그리고 기후변화와 연계된 기상이변 증가 역시 이주 관련 도전과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
 - 많은 이주민들이 이미 자원이 희소한 개도국으로 이동하여 긴장감을 유발하기도 하나, 대다수인 약 7억6,300만 명은 국외보다는 국내에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국제사회는 빈곤지역 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주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실향민 공동체와 이들을 수용한 공동체의 복원력 구축과 개발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 복구와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임.
 - 안전하고 정기적인 이주는 식량안보와 농촌생계 개선, 경제상황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각 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도 도움.
- 파머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기후변화 적응 및 탄력적인 농촌생활에 대한 투자가 현재의 이주 문제에 대한 글로벌 대응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세계 식량의 날'에 생물 다양성이 식량안보와 인간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역할을 기억합시다."라는 말로 기념사를 마칩.

* 관련 CBD 공문 전문 열람: <https://www.cbd.int/doc/speech/2017/sp-2017-10-16-food-en.pdf>

※ 벨라루스 국가 ABS 조정 센터 ('17.10.16)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ABS 관련 물질이전계약서(MTA) DB 구축 중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물질이전계약서(MTA)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음.
-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ABS 관련 모델 계약서 26건과 실제로 사용된 13건을 게시하여 유관 정보와 의견을 수렴 중임.
- ‘계약서 내의 조항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찾고자 하는 문구를 입력하면 그 조항이 포함된 ABS 관련 모델계약서가 모두 검색됨. (검색의 예: Access and Benefit-sharing, Monetary benefit, Commercial use)

* 계약서 내의 조항 검색기능: http://www.wipo.int/tk/en/databases/contracts/search_fulltext.html

※ WIPO 홈페이지 ('17.1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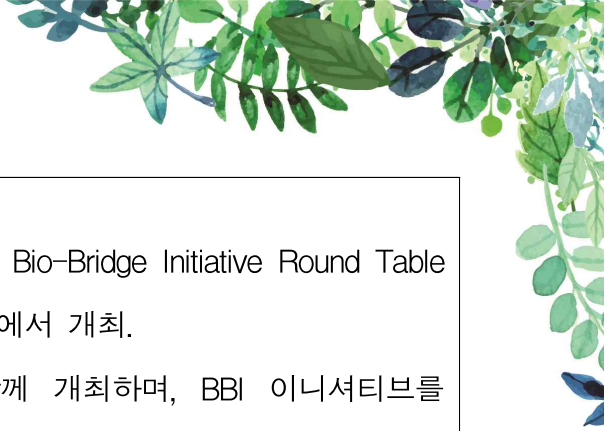
□ 프랑스, 파리 자연사박물관에서 제7차 글로벌 파트너십 회의 개최

- 오는 11월 23일(목)~24일(금) 동안 프랑스 파리 자연사박물관에서 있을 제7차 글로벌 파트너십(The Global Partnership for Business and Biodiversity) 회의가 개최.
- 글로벌 파트너십은 지난 제10차 당사국총회('10년, 일본)와 제11차 당사국총회('12년, 인도)에서 채택된 결정문(Business engagement decisions(X/21, XI/7)을 이행하기 위하여 설립.
- 첫째 날은 사업과 생물다양성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주제만 다를 것이나, 둘째 날은 주요 사안에 대한 주류화(mainstreaming),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들과 이에 따른 보고를 기업, 정부 및 유관단체들과 함께 토의할 예정.

※ CBD 글로벌 파트너십 뉴스레터 ('17.10.30)

□ 한국, 우간다, 벨라루스, 대륙별 지역 BBI 이니셔티브 라운드테이블 개최

- 아태 지역 BBI 이니셔티브 라운드테이블(Regional Bio-Bridge Initiative Round Table for Asia and the Pacific) 회의를 10월 16일부터 이틀간 한국 인천에서 개최.
- 이번 회의는 CBD 사무국과 환경부가 함께 개최하며, BBI 홍보, 사업 선정 절차 소개 및 협력 모범사례 공유의 장으로 진행.



- 아프리카 지역 BBI 이니셔티브 라운드테이블 (Regional Bio-Bridge Initiative Round Table for Africa) 회의를 11월 7일부터 이틀간 우간다 엔테베에서 개최.
 - 본 회의는 CBD 사무국과 우간다 환경관리청이 함께 개최하며, BBI 이니셔티브를 발족한 한국정부의 기금 후원을 받음.
 - 아프리카 지역 내 각 정부는 CBD, 나고야의정서 기술과학 협력 및 기술이전 분야의 전문가를 한 명씩 추천하여 관련 공문에 포함된 추천서 양식에 따라 9월 29일까지 CBD 사무국에 제출해야 함.
 - 중부 및 동부 유럽 지역 BBI 이니셔티브 라운드테이블 (Regional Bio-Bridge Initiative Round Table for Central and Eastern Europe) 회의를 12월 5일부터 이틀간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개최.
 - CBD 사무국과 벨라루스 국립유전세포과학원이 함께 개최하며, 동일하게 BBI 이니셔티브를 발족한 한국정부의 기금 후원을 받음.
 - 중앙 동부 유럽 지역 내 각 정부는 CBD, 나고야의정서 기술과학 협력 및 기술이전 분야의 전문가를 한 명씩 추천하여 본 공지문에 포함된 추천서 양식에 따라 10월 6일까지 CBD 사무국에 제출해야 함.
- * 아태 지역 BBI 관련 공지 : <https://www.cbd.int/meetings/TSCWS-2017-01>
- ** 아프리카 지역 BBI 관련 공지 : <https://www.cbd.int/meetings/TSCWS-2017-02>
- *** 남미 등 지역 BBI 관련 공지(미정) : <https://www.cbd.int/meetings/TSCWS-2017-03>
- **** 중부 및 동부 유럽 지역 BBI 관련 공지: <https://www.cbd.int/meetings/TSCWS-2017-04>
- ※ CBD 사무국 홈페이지 회의 일정 ('17.10.31)



ABS BRIEF 제66호

발행일 2017년 11월 1일
발행인 장규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발행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편집인 장영효 ABS연구지원센터 센터장
안민호 ABS연구지원센터 연구원
이수효 ABS연구지원센터 연구원
강태호 ABS연구지원센터 연구원
편집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연구지원센터
(전화) 042-860-4626, 042-879-8332~4
(FAX) 042-879-8339
(홈페이지) www.abs.re.kr
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BS BRIEF (Volume 66)

November 1, 2017
Published by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
Biotechnology (KRIBB)
Edited in ABS Research Support Center, KRIBB
Supported by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el: +82-42-860-4626, +82-42-879-8332~4
FAX: +82-42-879-8339
Homepage: www.abs.re.kr

[비 매 품]

'ABS BRIEF - 나고야의정서 국내외 동향'은
ABS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www.abs.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지에 수록된 기사 등의 내용은 작성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